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천대종 총무원장상)

되찾은 희망 (상)

변속이 (대구시 북구 관음동)

내 나이가 스물여덟 되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칠월절석을 앞두고 친정엄마의 권유로 단양 구인사라는 곳을 찾아갔다.

그 때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고생하고 그 악몽을 꾸고 나면 곧 생활에 연관돼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고민과 두려움으로 지장이 참 많을 때였다.

나는 9개월 된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구인사를 찾아갔다.

4박5일 기도표를 끊어 법당에 참배하고 대조사님 산소에 다녀오고 나니 노곤하고 기운이 없어, 지금은 구름다리 밑의 장작이 가득 쌓여 있는 비석자리 옆에서 2박3일 동안 밥도 먹는 등 마는 등하고 계속 잠만 잤다. 깨어나면 후회하고 또 잠에 취해 자고 그러던 중 밤중이 나오기 시작했다.

4박5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만 종종 큰 스님 친견을 위해 삼보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었다. 난 답답한 심정에 친견을 하고 집에 가야겠다는 결심으로 아침부터 줄을 서서 삼보당에 들어갔다.

큰스님을 친견하니 "기도 열심히 해"라는 그 간단한 말씀 한 마디뿐. 다른 사람들은 처방도 많더라만...

기대에 비해 너무 간단한 말씀하시니 혼자서 실망하다가 다시 치우고 집에 가고 했다. 남편과 자식 걱정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괜히 왔다는 생각에 후회스럽고 답답하기까지 했다.

친견을 마친 다른 신도님들과 함께 줄지어 삼보당을 나오는데 갑자기 비구스님이 "보살님?"하며 큰 소리로 불렀다. 큰 스님 앞에 있는 작은 쪽문을 지키던 스님이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뒤돌아보았다. 자꾸만 외치는 그 소리에 나도 뒤돌아보았다. 그 스님의 눈빛이 곧 나를 바라보며 부르는 것 같았다.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저 맞습니까?"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늘 친견 날짜가 아닌데 하는 죄책감이...

복새통 속을 빠져나가 스님 앞에 다가서니 스님께서 "보살님! 보살님 집에 가는 날짜 언제입니까?"라고 물었다.

"예? 집에 갈 날짜는 며칠 남았는데 오자마자 계속 잠만 자고 기도도 안 되고 해서 그만 집에 가려고 친견을 받고 나왔습니다" 했더니만 스님은 하늘을 쳐다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보살님! 보살님은 잠을 자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공부 잘 되고 있으니 꼭 4박5일 날짜를 채우고 가십시오"라고 하셨다.

"예"하고 돌아서는 순간 답답한 마음이 눈 녹듯이 가라앉으면서 머릿속에는 의문이 남기 시작했다. 잠만 잤는데 공부가 잘 되고 있다니...

저녁 공양을 하고 5층 법당 뒤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내 기도소리에 내가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몇 시간이 흘러갔을

즈음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과 동시에 마음은 고요히 작 가라 앉으면서 입에선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또 부르는데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마치 TV를 보듯 한순간 스쳐 지나갔다.

내 육체가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에 손으로 넓적다리를 꼬집어보았다. 내가 제 정신인 것이 맞는데 왜 이럴까?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좁은 것도 아니고 정신은 초롱초롱 맑은데...

멀리서 들려오는 비구니스님들의 기도 소리를 좇아 열심히 기도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더 없이 보배로운 생활의 지침서를 그때 주신 것 같다. 그 날 저녁 나는 내게 세 가지 보배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 중 하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어온 선업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조계종 절에 다녔다.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절 법당 부처님 앞에는 법사님 부인만 꽃 공양을 올리곤 했는데 어느 날 법사님께 서 나를 보고 "그름날이 되거든 국화꽃을 사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거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법사님은 영이 맑으신지 신기가 많으신지 참으로 까다로우셨다. 그때부터 난 용돈을 아끼고 정성들여 결혼할 때까지 꽃 공양을 올리라는 법사님 말씀대로 약8년 동안 꽃 공양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인사에 가서 기도 하니 제일 먼저 그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눈앞의 사할 도량이 부처님 주듯이 같았고 그 안에서 스님들이 즐지어 목탁을 치며 도는 모습과 곁에서 쌓인 온 산이 마치 국화꽃처럼 보이면서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전에 올린 그 꽃이 다 모여 저렇게 많구나. 그러나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도 순간이고 참나였다.

두 번째로는 인연법의 보배를 주셨고 세 번째로는 조상님 천도와 효에 대한 보배를 주셨다.



그림 · 문병성

악몽 떨치려 구인사서 기도, 계속 잠만 쏟아져 포기할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노라니 "기도 열심히 해" 하시던 큰스님 말씀이 자꾸 맴돌았다.

"아!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해 봐야지." 집에 돌아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남편의 불평은 점점 커졌다. 생각 끝에 남편을 포교하러 구인사 3일 기도를 갔다.

"부처님! 남편을 불제자가 되게 해 주신다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원을 세우고 부처님 앞에 빌고 또 빌었다.

5층 법당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관음전을 거쳐 삼보당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아! 몇 년 전 저 쪽문을 지키던 스님, 그

스님이 나를 그 때 불렀었지. 그 스님이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우물거던 비구니스님들이 생각을 썼고 있었다. 다가가서 여쭙보았다.

"스님! 5년 전 좀 저 쪽문 지키던 스님이 누구십니까?"하니 수군수군 익은 하시더니 "무원 스님"이라 하셨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날 아침 공양을 하고 내려오는데 저 앞에 스님 한 분이 뒷집을 지고 올라오고 있었다.

자꾸만 '저 스님이 그 스님이 아닐까?'라는 예감이 들어 어떤 노 보살님께 물어보았다. 무원 스님이라 했다. 너무도 신기해서 다른 처사님을 불렀고 또 물어보았다. 역시나 무원 스님이셨다. 그 후 구인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때나 기도하러 갈 때면 꼭 그 스님을 보게 되었다. 그 때마다 스님 뒷모습을 보며 '스님, 저 왔어요. 스님, 고맙습니다'라며 마음속으로 꼭 인사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에게 구인사 가서 4박5일 기도하고 오라고 사정했다.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팔짱 끼었다.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다가 제의했다.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당시 뜻대로 절에 다니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다. 그 말 책임지느냐고 다그치더니 각서 쓰라고 했다.

남편은 구인사로 떠나고 난 집에서 부처님께 기도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현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셋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개 천 지 조 화 벽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호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量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망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대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공력에너지, 생령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함으로써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입니다!